

강진군, 군민 의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군민의 목소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강진군이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강진군은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금단) 10명이 참석해 2026년도 강진군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 위치도와 사진 등이

포함된 검토의견서가 지난해보다 한층 보강돼 위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심의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주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총 32건으로, 그 중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문화·관광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이 포함됐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올해 주민 참여예산을 통해 건의된 총 32건 가운데, 제안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재정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총 7건(소하천 정비, 다리난간 보수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들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을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강진군청 홈페이지, 우편, 읍면동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곡성군, '제3회 곡성전국요리경연대회'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K-Food 먹거리 개발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7일(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2025년 제3회 곡성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3회 전라남도 교육감배 학생요리 & 제과·제빵 경연대회'와 공동으로 열린다.

곡성군은 앞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청춘 맛 대전!! 요리하는 청년, 곡성을 담다'를 주제로 청년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요리 대회 신청을 받았다. 9월 초 예선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10팀(20명)이 오는 27일 본선 무대에 출전할 예정이다.

본선 심사에는 전남조리과학고 출신 유명 셰프와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장식 ▲완성도 ▲지역성 ▲창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돼지 두 마리를 활용한 '미트마스터 & 바비큐마스터 퍼포먼스' ▲푸드 스타트 업을 위한 '푸드스타터' ▲우리 쌀 알일이 오란다 만들기 ▲'인생네컷'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와 관객을 대상으로 곡성의 특산물 박세미와 금(1g)을 경품으로 추첨해서 지급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창의적 요리 아이디어로 곡성 농산물의 가치를 결합하여 K-Food를 식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라남도 교육감배 학생요리 & 제과·제빵 경연대회'는 30팀(60명)이 참가해 11시부터 라이브 요리경연을 펼치며, 차세대 K-Food를 이끌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전남 구례군의 가을이 달콤하게 익어가고 있다.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태추 단감이 10월 초부터 본격 수확을 시작해 소비자들의 밥상과 선물 상자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태추 단감은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더욱이 구례의 큰 일교차와 깨끗한 자연환경이 더해져, 다른 지역 단감과는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구례군 태추단감작목반은 지난 8월 일

구례군, 가을 햇살 머금은 '태추 단감' 곧 만나요!

본의 단감 재배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진 재배기술과 유통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상기상에 대응한 생육·병해충 관리, 브랜드화와 판로 다변화 전략 등을 통해 태추 단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구례군은 태추 단감을 지역 특화 작물로 집중 육성하여 재배면적은 42ha에 이른다. 오는 2030년까지 50ha 조성할 계

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과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태추 단감은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6일까지 두 지역 살아보기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영암살래? 영암살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서면 모정마을에 마련된 5세대 규모 단독주택에서 1달 동안 머물며 귀농귀촌을 실습하면서 영암에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암군은 참가자들이 농촌 마을 속에서

영암살이, 한 달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영암살래? 영암살래!' 참가자 모집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영암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신청할 수 있고, 1가구당 최대 4명까지 총 5

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10/2일 주택 개장식을 시작으로, 10/20-11/18일 체류에 참가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살

래는 참가자에게 귀촌 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정착 사전 단계 프로그램이다. 많은 분들의 신청 바라고, 이들의 귀농귀촌을 위해 영암군이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6)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올해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사회복지·체육 부문 변태섭 씨, 산업경제 부문 김의병 씨를 선정했다.

'장성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 등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장성군의 최고 명예상이다. 군은 앞선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사회복지·체육 부문 변태섭 씨는 장성출신 사업가로 쌍마공업사와 모나리자 화장지 창업을 통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장성군, 올해 '장성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

사회복지·체육 부문 변태섭, 산업경제 김의병 씨 영예

자수성가의 모범을 보여 왔다. 다문화가정·잠전용사 지원, 장학사업 등 사회 환원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현재 주간 장성

신문사 회장을 맡고 있다. 산업경제 부문 김의병 씨는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2023년, 2025년 두 차례

대상을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새벽밥 대표다. 현재 해외 수출을 통해 전라도 김치의 맛을 세계에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꾸준한 나눔 실천은 물론, 재광장성군향우회 회장을 맡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26일 공설운동장 옐로우 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48회 장성군민의 날 및 제27회 장성군민체육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담양군, 우호증진과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기대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주민 대상 유료관광지 무료 개방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자매결연·우호교류를 맺은 자치단체 주민에게 관내 주요 유료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류 도시 간 유대 강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입장이 관광지는 담양의 대표 명소인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3곳이며,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현재 담양군과 자매결연·우호교류를 맺은 지자체는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 ▲전남 신안군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전북 순창군 ▲서울 중랑구 ▲경북 울진군 등 12곳이다.

군은 앞으로도 교류 협력과 주민 친화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정책은 지역 간 우호 증진은 물론, 담양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



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담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주요 관광지인 가마골생태공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군은 영산강 시원지 담양의 청정한 자연을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 생태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